

# 홉스의 정치사상과 그 제한성

정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선행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 416페이지)

토마스 홉스는 영국혁명수행기를 대표하는 정치가이다.

그의 정치사상은 그의 생애와 당시 사회환경과 밀접히 결부되고있다.

그는 에스빠냐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안에 출몰하고있던 1588년에 태어났다. 제임스1세가 즉위하던 때 15살이었던 그는 찰스1세시기에 혁명의 파도를 목격하였고 왕정복고도 체험하고 1679년에 죽었다.

그는 영국교회목사의 아들이였지만 스콜라학이나 퓨리탄이즘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대학을 마친 후 그는 당시 왕당파의 유력한 귀족이었던 카빈디쉬경의 가정교사로 있었다. 그는 1610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여행에서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홉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주의의 격렬한 반대자인 프란시스 베이컨과 이탈리아에서 상면한 갈릴레이였다.

홉스는 물리학에서 갈릴레이가 이룩한 업적을 찬양하면서 정치령역에서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즉 그는 기계적해석이 인간사회해석에도 적용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찰리왕조의 최후의 군주인 엘리자베스녀왕의 사후 제임스1세가 스코틀랜드로 온 영국왕으로서 왕권신수설에 의거한 전제정치를 실시하였고 그후 찰스1세에 의하여 그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 신흥부르조아지를 위주로 한 청교도들은 의회내의 급진파인 독립파와 결합하여 반항하여나섰다. 그리하여 1642년 이른바 청교도혁명의 수행으로 공화정치가 수립되였다. 홉스의 정치상의 주저인 《레비아산》(1652)은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이 시기 이미 영국에서는 봉건적토지소유제가 붕괴됨에 따라 구지주계급에 대한 농민층의 계급분화도 현저해지고있었다. 여기에 신흥상인계층의 활동무대가 급속히 넓어지고 카톨릭과 청교도와의 투쟁도 격화되였다. 이리하여 1, 2신분으로서의 특권적승려, 귀족에 대한 3신분으로서의 부르조아지의 성장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사회정치적혼란속에서 종래 중세사상과 전통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신흥부르조아지의 로골적인 개인주의가 대두하였다.

홉스의 정치연구의 출발점이 인간성에 놓인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그의 인간성연구를 규제하고있는것은 아래와 같은 발상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리성에 의하여 연구된다. 인간은 기계와 같이 움직이며 인간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기계를 바로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것은 이 기계를 바로 파악하는것이다. 인간이나 사회에는 그를 규제하는 법칙들이 있다. 이것들은 성서나 교회의 교리를 연구하는것으로는 파악할수 없다. 그에 대한 파악은 인간과 국가의 성질을 연구하는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치의 기술은 심리학의 기초우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성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것이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리성과 감성의 두 부분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량자가 과학적연구의 대상으로 된다. 자연적리성을 내재하고있는것이 인간이고 여기에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리성은 그자체로는 개체적으로 있는 실체도 아니고 특수한 창조능력도 아니다. 리성은 주로 감성적지각에 의하여 얻어진 지식을 명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움직이는 진실한 힘은 감정이다. 인간의 식욕이나 욕망은 외적대상에 의하여 자극되어 그에 끌리게 하지만 혐오는 그와 반대이다. 즉 혐오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운동이다. 인간이 집착하는것이 선 혹은 쾌락이고 인간이 혐오하는것이 악 또는 불쾌이다. 근원적으로 보아 선과 악사이의 구별의 기준은 쾌와 불쾌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운동은 자기 리익을 지향하며 쾌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고 불쾌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지향되고있다. 인간모두는 행복을 지향하는데 이 행복이란 욕망의 만족속에 있는 부단한 성공이다. 이로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힘에 대한 멈출수 없는 욕구가 존재한다. 힘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효과적수단이다.

이것은 홉스가 부르쥬아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적동물》로서의 인간의 사회적성질을 부정하고 그를 자연적존재, 리기적존재로 묘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홉스는 정치사회의 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홉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는 계약과 신뢰를 그 결합의 계기로 하는 집결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충동으로부터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이 집결체가 없는 경우에 일어날수 있는 불안과 위구에 대한 리성적인식으로부터 나온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공동생활의 가능성은 리성의 능

력에 있다. 순수 리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성에 귀속되는 공리적충동은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적리해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간들의 개인적희망이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사이의 대립과 상극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여기서는 구체적개인들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의하여 그들을 실질적통일성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계기는 없다.

이로부터 홉스는 시민적인것이 결여되고있는 자연상태를 설정하였고 그것을 자연적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순수한 대립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생기는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는 여러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며 둘째는 타인이 힘에서 자기를 능가하지 않는가 하는 공포이며 셋째는 타인에 비하여 우월한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의 지향이다. 바로 이것들로 하여 인간들사이에는 현재적인 혹은 잠재적인 투쟁이 부단히 일어난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법과 불법사이의 개념적대립의 여지가 없다. 자연상태에서는 오직 개인의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을 뿐이다. 자기 보존의 본능과 이 자연적능력의 실현이 바로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개인에게 내재하는것으로서 개인이 자기의지에 따라 자연적능력을 행사할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자연권은 자기 보존과 성장을 위하여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를 다할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개인들의 평등한 자연적능력이 상대로 되고있기때문에 그 결과 투쟁상태가 조성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사실상 홉스의 이러한 자연상태의 상정은 억지공사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인간의 자연상태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그에 앞선 인

간의 자연상태를 논의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홉스의 자연상태에 대한 상정은 본질상 자본의 시초축적시기 약육강식의 상태에 놓인 당대 영국의 현실상에 대한 반영으로서 개인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부르쥬아지의 입장으로부터 도출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홉스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은 불안과 투쟁으로부터 자기 보존의 충동에 이끌린다. 즉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자연권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이성적인 사회적당위로서의 규범이 나타나서 이 불안과 투쟁상태를 끝장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 이성적인 사회적당위로서의 규범의 의의는 자연상태의 극복과 개인들의 생명을 보장하는것이다. 이로부터 홉스는 자연권을 넘어 《자연법》을 끌어냈다.

그에 의하면 자연법은 3가지 기본요구를 가지고있다.

첫째는 인간은 평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확보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현재적 혹은 잠재적투쟁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인간은 서로 그 자연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셋째는 일단 체결된 계약은 모두 다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시 자연상태에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협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우에 권력, 힘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홉스에게서 자연법과 자연권이 대치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자연권은 자연상태를 투쟁상태로 만든다. 이와 반대로 자연법은 개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성이 만든 원칙들이다. 자연법은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리성의 계율, 일반적규칙이다.

자연권이 모든 자연적능력을 행사할 자유였다면 자연법은 의무이고 자연적힘의 발현에 대한 구속과 제한이다. 전자가 전쟁행위와 결부된다면 후자는 전쟁상태의 지양 즉 평화상태의 요청과 결부되고있다.

홉스는 자연권을 가진 반사회적인 자연적존재와 자연법이 의미하는 평화법칙에 있는 사회적존재의 당위성으로부터 자기식의 사회, 국가리론을 끌어냈다.(그에게서는 아직 사회와 국가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홉스에 의하면 개인들로 하여금 그 자연권을 버리고 이웃들과 협조하게 하는 자연법은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권력에 대한 호상동의에로 이끈다. 이러한 호상동의에 의하여 국가가 만들어진 다. 인간은 올바른 리성의 명령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듦으로써 암흑으로부터 광명의 세계에로 향한다.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연권은 주권자(국가)에게 이행한다. 주권자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3자이다. 국가는 《사회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는것 이외에 어떠한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것이다. 사회단체, 자유, 사유재산은 오직 국가가 허용하는 한에서만 존재할수 있으며 국가는 모든자를 절대복종시키는 《레비아산》이다. 국가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설정할수 있다. 국가는 리성 즉 공정, 신뢰, 절제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회계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통치자에게 무제한한 권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국가통치자가 선출되면 그가 허락하는 이외의 권리는 제한된다. 통치자는 온갖 권력을 총괄하는 《공적량심》으로서 그앞에서 개인들의 의견이나 량심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

홉스는 군주제가 의회제보다 사회를 분쟁으로부터 수호하는데 유익하다고 보면

---

서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절대군주제는 중세기적세습군주제는 아니었다. 즉 그가 내세운 군주는 절대권은 가지지만 세습되는것이 아니라 선출되는것이였다. 여기에 그의 이론의 근대적성격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홉스는 유럽에서 처음

으로 신흥부르쥬아지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대변하는 정치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악을 본성으로 하는 리기적존재로 보고 허황한 《만인의 전쟁상태》를 설정하고 절대군주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부르쥬아민주주의사상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결함을 범하였다.